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에딘버러 선교보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권태경(충신대학교)

서론

사무엘 모펫 (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은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지만,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교의 학장으로서 한국의 인재 양성에 힘쓰며, 한국의 근대 교육과 민족 교육에 기여한 교육자였다. 사무엘 모펫을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 (馬布三悅) 이라고 하는데, '삼열'은 세가지 '기쁨'이라는 뜻이다. 선교사와 교육자 그리고 일제하 독립투사로 살았던 그의 삶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하나의 크나큰 흔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글은 모펫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지 20년이 지나 1910년 6월 17일 영국의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한국의 선교 상황을 보고한 내용,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을 소개하며, 모펫이 바라본 초대 한국 교회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바라기는 이 글이 모펫의 선교 사역을 통해 초대 한국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교회와 선교의 본질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I. 모펫의 한국 선교 보고: 초기 한국 교회의 3가지 특징

모펫은 1864년 1월 25일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 매디슨(Madison)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하노버대학(Hanover College)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McComick Theological Seminary)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 맥코믹신학교는 미국 보수주의 신학의 본산으로 보수적인 목사들을 양성하였고, 복음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많은 선교사들이 전세계에 퍼져 나가도록 이끈 중추적 역할을 한 신학교였다. 1889년 4월 15일 모펫은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0년 1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는 언더우드(H. Underwood) 선교사 집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서상륜이 당시 한국어 교사였다.¹

모펫은 1890년 8월부터 1891년 가을 동안 3차례의 전도여행의 경험을 하면서 복음전파와 교회 설립에 전념하였다. 1893년 미국 북장로교회 한국 선교부는 드디어 평양에 선교지부 설립을 결의하고 마포삼열과 이길함(李吉咸, Graham Lee), 소안론(蘇安論, W. L. Swallen)을 평양에 파송하여 지부 건설을 하도록 위임하였다. 모펫은 평양을 중심으로 1893년에 장대현교회를 비롯하여 교회 개척과 선교에 열심을 다하였고,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의 학장으로 교육에 헌신하였다.²

모펫은 한국 교회의 1901년 에딘버러 선교 보고 대회에서, 당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나 그 지방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9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도시에서 15마일 반경 안에 50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평안도 지역 전체에는 300개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는 이제 15개의

교회가 있고, 송도(개성)에는 4개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땅 전체에는 2500개 이상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수백개의 마을의 주민이 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1/5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양과 같은 그런 도시에서의 생활은 기독교가 그 최대의 변수로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선천은 주민의 1/3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³

이처럼 모팻은 자신이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 초대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증언하였다. 이 부흥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와 특징을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모팻은 한국 초대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초대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 교육 사역을 하는 교회로 보고하고 있다.

1.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이다.

모팻은 선교보고에서, “무엇보다 먼저 그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의 약속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⁴ 초기 한국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인 이유중의 하나는 한국의 선교들의 신학 사상과 관계가 있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신학교 출신을 보면, 성경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 모팻이 졸업한 학교는 맥코믹신학교이다. 맥코믹신학교는 신학적으로는 구학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열려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한국 장로교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맥코믹신학교 출신자들의 이상과 무관하지 않다.⁵ 1909년에는 한국에 약 40명의 선교사들이 활약하고 있었는데, 출신학교별로 보면 프린스턴 출신이 16명으로 제일 많았고, 맥코믹 출신이 11명, 샌프란시스코신학교가 4명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초기 장로교회의 신학사상이 성경 중심주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⁶

모팻은 한국 교회의 특징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화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경회를 언급하고 있다. 모팻은 “이러한 성경 사경반과 양육반은 교육과 양육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하나의 전도하는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게 하였다... 중앙에서 주관한 사경회는 처음에 단지 일곱 명의 남자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커져서 서울에서는 500명이 모여 공부하게 되었고 대구에서는 800명이, 재령과 평양에서는 각기 1,000명이 모여 배우게 되었으며, 선천에서는 심지어 1,300명이나 모이기까지 했다. 다른 한편 여성들을 위한 사경반은 송도, 부산, 대구, 공주, 평양, 선천 중지에서 열렸는데 150명으로부터 700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선교부의 선교보고에 의하면, ”(성경) 공부반이 262개 있고 거기에 13,967명이 등록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수는 2,000개가 넘을 것이고 참석자는 100000명 이상의 남녀가 거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선교부에서만 그 참석자가 7만명이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다”⁷

한국 교회가 성경 중심의 교회로서 부흥한 결정적인 사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도 사경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흥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모팻에 의하면, “1905년에 1,000명 이상이 믿는 사람의 이름에 올랐으며, 한 주일에 247명의 원입교인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1908년에는 1,000명 이상의 회심자를 남기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이런 사경반을 통해 모든 가정에 마가복음 한 한국을 떠 날 때 이미 700,000이 발행되어 팔려나갔다”⁸

이처럼 한국 교회는 이미 성경중심의 교회가 되어, 이것이 부흥의 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다른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1934년의 북장로교 선교회 회년 성회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독특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부여한 것이 지난 50년 동안

한국 복음화의 탁월한 요소였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본 선교회는 우리의 사명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은혜를 통한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초자연적 계시를 선포하는 데 있음을 전제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탁월한 위치를 점유해야 한다고 믿는다.”⁹

2. 한국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이다

모팻은 한국 교회의 복음화의 두 번째 특징으로 한국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팻에 의하면, “복음화 사업에서 한국교회가 차지할 위치는 그 교회가 하나의 자립하는 교회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가 자립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지기까지는 어떤 교회도 그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립이 좀더 빨리 좀더 완전하게 이루어질수록 그 복음화 사업도 더 빨리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¹⁰

초기 한국 교회의 자립성은 교회 건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선교부 관할하에서 세워진 840개의 교회 중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해외 기금을 받아서 건축한 교회는 20개도 되지 않았다. 아주 대형 건물을 건립한 몇 개의 교회도 보조를 받았지만, 그것도 건축비의 1/3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였다. 589개의 초등학교 건물은 실제로 모두가 한국인들 스스로의 모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되었다. 어느 한 선교부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는 1,052명의 한국인 일꾼들 가운데 94%는 한국인들의 후원으로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한국 교회의 자립성은 선교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면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팻안런은 네비우스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널리 순회하며 전도함.
2.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됨
3. 자전(自傳):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된다. 모든 개인과 집단(소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휘문이법에 의해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4. 자치: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 집회시에는 교인들을 훈련시켜 훗날 구역, 지방, 전국의 지도자가 되게 한다.
5. 자립: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을 소유한다. 각 그룹은 창립되자마자 순회 조사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한다. 학교조차도 부분적인 보조금을 받도록 한다. 이것은 설립될 당시에만 필요하다. 개교회의 목사에게 외국의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
6. 모든 신자는 그룹 영수와 순회 조사 아래서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수와 조사는 성경연구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7. 성경적 형벌을 통해 엄격한 징계를 실시한다.
8. 다른 선교 단체와 협력하고 연합한다. 아니면 최소한, 영역이라도 분리한다.
9. 법정 소송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10. 민중의 경제 문제에서 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도움을 준다.¹¹

다른 한편, 1934년의 북장로교 선교회 회년 성회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에 의하면, “복음의 선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본 선교회의 책임이지만, 교회의 재정적 자립은

교회 자체의 책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소신이었다. 자립은 교회와 교회 기관들의 설립과 적절한 발전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자립에, 선교회의 자금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건물의 건립과 목회자의 부양과 운영 경비에 관한 궁극적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원칙을 방해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 방향에서 선교회의 재정적 도움은 주어질 수 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도 향후 한국교회의 자립성의 이유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공의회는 장로교 선교회 규례 가운데 신학 교육의 자립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제 3조: 신학훈련의 목적은 다양한 조선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 일에 적합한 인물로 만드는 것인데, 보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가 받은 소명을 떠나지 않고 다른 교사들을 자기네 스스로가 보조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¹³

3. 한국 교회는 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이다.

모팻은 복음전도에 주력하고, 한국 사회가 복음화되면서 세워진 교회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한국인 지도자들의 능력을 키워주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모팻이 주력하는 교육 사업이다. 모팻은 선교보고에서, 한국 교회 복음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과 한국인 목사, 한석진과 김창식 목사 그리고 길선주 목사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모팻은 한국교회 복음화에 “교회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대로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교회 정치의 책임도 져야 한다. 그리고 목사와 전도자로 세움을 입어 최전선에 세워져야 한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순회 선교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냄으로써 그리고 사경회를 통한 수 년간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사역자들로서의 봉사를 위한 자질을 갖추어 왔다. 실제로 모든 목사와 전도사는 먼저 지교회에서 직분자로 훈련을 받아 왔고, 다음으로 조사로서의 시험 단계를 거친 다음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음 전도자들에게 특별한 신학적 훈련을 받게 한 뒤에 우리는 25명에게 안수하여 사역 현장으로 보냈다. 그리고 현재 다른 250명 이상의 학생이 두 개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하였다.¹⁴

모팻은 길선주 목사가 한국 교회의 최고의 설교가이며,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 하면서, “나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의 하루는 1907년 10월에 있었다. 그 때 여러 해 동안 그래함 리 목사와 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조사로 일해 오던 길 목사가 안수를 받고 중앙교회의 목사로 취임했던 것이다”라고 회고하였다.¹⁵ 한국 교회가 이만큼의 부흥하게 된 원동력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 설립에 기독교 학교들이 기여한 면을 지적할 수 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1886년-1910년에 서울과 지방에 수많은 기독교 미션 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실제로 모팻은 평양신학교(1901-25년) 교장과 와 숭실대학의 3대 학장(1918-28)으로 인재 양성에 헌신한 교육자였다. 평양신학교는 모팻 선교사에 의하여 1901년에 설립되었다. 평양부 하수구리 언덕 100번지에 교사 건축 공사를 준비하였고, 1901년 5월 15일에 역사적인 정초 예배를 드릴수 있었다.¹⁶ 1905년 평양신학교 학생과 교수 일동의 기념촬영에서 제일 앞쪽의 중앙에 길선주와 한석진이 앉아있는데 전자는 성경을, 후자는 태극기를 각각 손에 들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의 복음과 조선 민족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후 평양신학교가 민족의 복음화와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참여의 길을 염두에 두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⁷

1916년 ‘신학세계’에 평양신학교 설립자 모팻은 ‘장로회교 신학교 약사’ 라는 제목으로 평양신학교 설립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¹⁸ “조선 반도에 장로교 신학회는 평양 시내에 재(在)하며 조선에 재(在)한차 교회사업(此教會事業)의 가장 유표(有表)하고 현저한 본색(되는 성경 전문 학반

제도(聖經專門學班制度)에서 점차 발전되어 조직되었고 사역하는 조사와 영수제씨(領袖諸氏)의 개교회(此教會)에서 제씨등의 요구되는 사역함의 지력과 영력에 공급하였더라.”¹⁹

1901년 평양신학교는 장대현교회 시무 장로 김종섭과 방기창 두 명의 학생으로 개교되었다. 당시 한국의 장로교회에 시무 장로는 이들 외에 장대현교회 길선주와 황해도 장언의 서경조등 네 사람뿐이었다. 1901년 가을공의회는 조사들의 교육을 위한 신학교육 위원회를 임명하고, 공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는 잠정적인 교육과정을 제출해서 채택되었다. 1902년 평양공의회는 양전백 장로, 길선주 조사, 이기풍, 송인서를 신학생으로 천거해서 허락을 받아 1903년 봄에 평양신학교 신학생은 6명이 되었다. 1903년 겨울, 봄, 여름에 평양 공의회는 잠정적으로 채택한 교과과정으로 이들 여섯 명을 한 반에 모아 1년간의 교과 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본교의 발전-본교 하차제로 진보되어 목사 후보자로 주후 일천 구백 일 년 평양 중앙교회당 장로 이인이 입학하고 일천 구백 삼년에 사인이 더 입교하여 합 육인을 집합 후 오개년에 시험적 교수학과 중 제일년 급과목을 교수하기를 시작하였고 매년 삼 개월간은 제학하여 공부케하고 구개월간은 무교에 종사케하여 교회를 주장케 하고 사경을 인수케하며 정한 과목에 대하여 자택에서 자습을하여 연구케 한후 차시 귀교시에 시험을 수케하더라.”²⁰

평양신학교 초기 교수진을 보면, 모팻과 소안론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남장로교회의 최의덕(崔義德, L. B. Tate)과 배유지(裴裕祉, W. M. Baird), 호주 장로교회의 부두일(富斗一, W. R. Foote), 북장로 교회의 노세영(盧世永, C. Boss), 광안련(郭安蓮, C. A. Clark), 사우업(史佑業, C. E. Sharp)이 반학기씩 가르쳤다. 평양의 다른 선교사들은 성경 시험을 주관하였다. 그 외 방위량(方緯良), 모삼열(牟三悅, S. F. Moor), 편하설(片夏薛, C. F. Bernheisel), 안위와(安義窩, J. E. Adams) 선교사 등이 교수하였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방위량, 노세영 편하설, 안위와 등이 모두 맥코믹신학교 출신들이라는 사실이다. 평양선교회는 모팻 목사를 비롯하여 시카고 맥코믹신학교 출신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²¹

모팻이 교육자로서 한국의 근대 교육에 기여한 면은 숭실대학 3대 학장(1918. 4-1928.9)과 숭의학교 교장으로 재임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숭실학교는 한국 근대 교육사에서 기독교 학교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였다.²² 모팻이 학장으로 재임한 숭실대학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평양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평양주민들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였다. 교명의 崇實의 實은 眞實과 實業의 實이니 조선 후기의 실학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실업을 통해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을 담고 있다. 숭실대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근대지향적 민족의식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²³ 숭실의 역사를 보면, 숭실학교는 1897년 숭실학당(중학과정)에서 출발하여 1906년 9월 15일 대학과정(1905년 가을 학기에 숭실학당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 과정 실시)을 설치하여 발전하던 중, 일제 치하에 1925년 숭실 전문학교로 개편되고,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었다. 1954년 서울에서 재건되어 1971년 숭전대학(숭실과 대전대학 통합), 다시 1987년에 다시 교명이 숭실대학이 되었다. 모팻이 학장으로 재임한 숭실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학문을 개척한 대학이며, 기독교 학문의 진리와 학문의 진실을 숭실하고 동시에 실질과 실용을 중시한 대학이었다. 실제로 모팻은 교사와 학장으로 재임한 동안, 기독교 학교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민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한 교육자였다.²⁴

모팻은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 뿐만 아니라, 숭의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숭의학교는

1903년 10월 31일 개교하였다. 송의백년사에 의하면, 송의의 모태는 평양 신양리 단층 기와집에서 시작한 '예수교 소학교'이다. 여성 교육의 깃발을 들고 평양성 한 모퉁이에 하나님의 진리와 신학문을 가르치는 새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1897년(광무 1년) 늦은 가을에 "예수교소학교"가 문을 연 것이다. 송의의 모태가 된 이 예수교소학교는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조출한 모습으로 출발했다. 신양리 이길함 목사 집 앞에 있는 ㄱ자형 단층 기와집에서 가르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들과 배우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소녀들이 모여 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처음 모여든 학생은 불과 10여명 정도였다. 선각자들의 가정에서 자란 귀한 규수들이었다. 그 시대에 딸을 가정 밖으로 내보내 신식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부모는, 역사의 흐름과 미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선각자들이었다. 25

6년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예수교소학교를 나온 이 세 명 졸업생들의 진학을 위해 선교부에서는 마포삼열 목사의 계획을 받아들여 중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교사를 물색하다가 전에 병원이었던 제중원 건물을 사용하여 개교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단층 기와집이었는데 경창문 안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다. 이 건물에 교실과 기숙사를 함께 두기로 하고 구조를 약간 바꾸고 수리를 했다. 1903년 10월 31일, 드디어 송의여학교가 창립되었다.²⁶ 교명, 송의의 의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는 성경구절에 근거한다. "의"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공의로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인간의의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인이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의인칭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곧 "의"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것이 복음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말씀대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송의"는 "의를 높이는 학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학교"라는 뜻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학교가 바로 송의여학교인 것이다.²⁷ 송의학교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에서도 드러나듯이,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 하는데 특별히 힘을 쓴다는 원리에 따라 송의는 한국 여성교육의 여명이었으며,²⁸ 학교를 통한 선교를 강조하는 모팻의 교육 선교 방법에 의하여 한국의 근대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한 기독교 사립 학교였다.

결론

필자는 한국 교회의 아버지 사무엘 모팻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三愛三悅'이 라고 생각한다. 모팻에게 '삼애'(三愛), 3가지 사랑은 하나님, 한국, 한국인이었다. 삼열('三悅'), 3가지 기쁨은 선교사, 교육자 그리고 애국자로서 기쁨을 말한다. 모팻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보고를 다음과 같이 마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시간을 내 달라고 구두로 그리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서 주어진 주제는 한 마디로 한국에서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람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한 교회를 불러 내어 큰 영적 능력과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기를 기뻐 하셨다는 것 보다 더 나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한국에서의 사역이 보여 주는 하나의 아주 당당한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어진 그 자리, 그 최고의 자리, 아마 거의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였다.”²⁹

모팻은 1910년 영국 에딘버러 선교 보고대회에서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한국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자립하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 양성의 책임을 가진 교회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를 선교적 관점에서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선교사 모팻은 한국 교회의 아버지로서, 한국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교 그리고 숭의학교의 설립자와 학장으로 재임한 교육자였으며,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통치기에 민족 교육을 위해 투신한 한국 근대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일제하 기독교 사립학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한 민족 학교로서 애국 계몽 운동의 중심적인 학교였다. 모팻이 설립하고 학장으로 재임한 평양신학교와 숭실학교는 한국 근대의 역사에서 독립 운동의 중심적인 사립학교였다. 즉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평양신학교와 숭실학교는 민족 학교로서 독립 운동을 하는 애국 애족으로서 교육 기관이었다. ³⁰ 모팻의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 1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60-66. 모펫의 맥코믹신학교 동기생 중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와 기포드(Daniel L. Gifford ?-1900)가 역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고 함께 입국하여 동역하였다. 『마포삼열 목사의 선교편지, 1890-1904』, 김인수 역(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19.
- 2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60-66: Sallie. F. Swallen, *Dear Sister Jennie* (Seoul, Korea:1893)
- 3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A Paper read at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Union Seminary Magazine, 12 (October-November), 228.
- 4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228.
- 5 『총신대학교백년사』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2), 232-233.
- 6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100-101.
- 7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229-30..
- 8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231.
- 9 광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선교정책』 (대한기독교서회, 1994), 421.
- 10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232-33..
- 11 John L Nevius,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광안련, 44-45.
- 12 광안련, 421.
- 13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76-85: *Standing Rules and By-laws of Korea Presbyterian Mission* (January 1901), 9.
- 14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233.
- 15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233-34.
- 16 유준기, "1910년대 기독교의 민족 독립운동: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총신논총』 19 (2001), 83-34.
- 17 유준기, "1910년대 기독교의 민족 독립운동: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85.
- 18 『총신대학교백년사』, 138.
- 19 『총신대학교백년사』, 138.
- 20 『총신대학교 백년사』, 142-43.
- 21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100-101.
- 22 송실학교의 교과내용은 표를 참고하라. 모펫은 송실학교에서 성경과 천로역정을 담당하였다. 『송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송실편, (송실대학교, 1997), 81.
- 23 http://www.ssu.ac.kr/web/kor/intro_c_02_02
- 24 『송실대학교 100년사』 6.
- 25 『승의 100년사』 (승의학원, 2003), 77.
- 26 『승의 100년사』, 79.
- 27 『승의 100년사』, 85-86.
- 28 『승의 100년사』, 75.
- 29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235.
- 30 송실학교가 일제하 애국 계몽 운동과 민족 교육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은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실행을 받은 교사(모펫 포함)와 학생의 수가 15명에 이르며 송실과 관련된 선교사들이 대거 연루되었다. 『송실대학교 100년사』 121.

